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2022 의원 공무국외출장 추진계획



전주시의회
사무국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www.council.jeonju.go.kr

목 차

I. 출 장 개 요	1
II. 심사근거 및 절차	2
III. 배경 및 목적	3
IV. 기 대 효 과	17
V. 국 가 소 개	18
VI. 출 장 일 정	24
VII. 출장단 구성	25

2022 의원 공무국외출장 추진계획

『영국, 프랑스』

I 출장 개요

- 기간 : 2022년 10월 중
- 국가 : 영국, 프랑스
- 분야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적인 스포츠 특화도시 및 친환경 도시계획 및 역사·문화유산 보전
지자체 음부즈만 제도 및 공공부문 아웃소싱 도입활용
- 인원 : 17명
- 소요경비 : 1인 4,500천원(자부담 1,500천원, 소요경비의 1/3)
 - ▶ 국외여비 지급항목 : 항공운임 - 실비
 - ▶ 지급기준(일비·식비·숙박비) [단위: 1인/USD 1346.30원 / '22. 8. 30.기준]

구분	총계		일비			식비			숙박비		
	\$	원	일수	\$	계	일수	\$	계	일수	\$	계
의장	2,912	3,920,425	10	35	350	10	107	1,070	9	166	1,492
의원	2,415	3,251,314	10	30	300	10	81	810	9	145	1,305
4~5급	2,123	2,858,194	10	30	300	10	59	590	9	137	1,233
6급이하	1,694	2,280,632	10	30	300	10	44	440	9	106	954

※ 근거 :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공무원 국외여비 지급 규정, 공무원 여비규정

- 연수비용(예산범위 내 지급)
 - ▶ 의원 : 3,000,000원 × 17명 = 51,000,000원
 - 예산과목 : 의정활동지원, 의정활동 운영지원, 의회비(의원국외여비)

○ 연수방법

- ▶ 용역 수행업체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용역업체 선정
 - 역할 : 항공 및 호텔 예약, 현지교통, 보험가입, 안내 등 전반
- ▶ 방문기관 선정 : 연수 참여의원 선정(간담회) ⇨ 현지 코디안내
 - 의회사무국 : 방문장소 및 주요 벤치마킹 사항 등 공문시행
 - 용역업체 : 기관방문 사전협의, 방문대상자 및 보조자료 준비, 현지 전문 코디 활용 진행 등

II 심사근거 및 절차

□ 심사근거

-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의회규칙 제36호, 2019. 3. 28.)

□ 추진계획

- 공무국외출장 심사 : 9. 23.(금)
- 용역업체 모집공고 : 9. 26.(월) ~ 10. 6.(목) / 10일간
- 제안신청서 접수 : 9. 26.(월) ~ 10. 6.(목) / 10일간
- 평가위원회 구성 : 10. 6.(목) 까지
- 용역업체 선정심사 : 10. 7.(금)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10. 11.(화)
-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 10. 12.(수)
- 의원공무국외출장 : 10. 20.(목) ~ 10. 29.(토)

III 배경 및 목적

□ 연수배경

- 최근 저탄소, 자원 재활용, 태양광, 친환경 도시재생 등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화두는 이제 관심을 넘어 우리와 후손이 생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
- 전주는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국내를 대표하는 관광거점 도시로 U-20 월드컵 대회의 성공적인 추진과 2023 월드 시니어 배드민턴 대회의 유치를 통해 세계적인 스포츠 특화도시로 여정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관련 지식 및 인프라는 많이 부족한 상태임
-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도시재생, 각종 친환경적인 공공시설 구축을 통해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아름다운 역사와 문화유산을 보존하며 세계관광의 중심 및 스포츠 특화도시를 보유한 프랑스와 영국의 모델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연수목적

국제대회 유치를 통한 스포츠 특화도시 모색

- 프랑스 오픈 배드민턴 대회는 프랑스 배드민턴 연맹(FFBadd)에서 주관하는 대회로 190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세계배드민턴연맹(BWF)의 슈퍼시리즈로 승격, 세계 12대 배드민턴 대회 중의 하나로 발돋움하였으며, 2018년부터는 세계배드민턴연맹 월드투어 슈퍼 750 이벤트로 분류되며 나날이 발전하고 있음

- Wimbleton은 런던 남서부의 지명으로 원래는 런던 근교의 위성도시였으나, 런던의 확장에 따라 그레이터 런던에 편입된 지역으로 우리에게서는 ‘윌블던 테니스 대회’로 매우 유명한데, 이 대회는 1877년에 시작, 15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회로 세계 4대 테니스 메이저대회 중 가장 오래된 역사와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고 있으며, 대회가 열리는 런던에서는 매년 6~7월 대회를 관람하기 위해 전 세계의 팬들이 몰리며, 세계 최고의 테니스 도시로 그 명성을 자랑하고 있음

[2023 월드 시니어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와 스포츠 특화도시]

- 우리시는 2023. 8월 국·내외 50개국, 5,000여명의 배드민턴 관계자들이 참여할 ‘전주 월드시니어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개최를 확정하고 대회 준비에 매진하고 있음. 특히, 세계적인 수준의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경기장과 연습장, 숙소 등 기본적인 인프라와 조직위원회 구성, 각국 선수단에 대한 편의 제공 등 수많은 분야에 대한 지식과 논의가 필요함. 아울러, 성공적인 대회 추진을 위해서는 대회 개최 전, 여러 나라의 각급 대회 등을 통한 홍보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 코로나-19의 대유행 등으로 지금까지 현지 홍보 및 대회 등을 참관하지 못하였음. 다행히 세계 주요나라를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등의 엔데믹 흐름 속에 **‘대한배드민턴협회의 국제대회 참관 요청’**에 따라 오는 10월 25일 ~ 30일, 파리에서 개최되는 BWF 월드투어 슈퍼 750 대회를 통해 세계적인 배드민턴 대회의 추진을 위한 홍보 및 벤치마킹을 추진하여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110대 국정과제를 통하여 ▲ 스포츠 저변 확대 ▲ 전문체육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및 국제경쟁력 강화 등 스포츠 위상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는데, 이 공약의 세부적인 내용은 지역 스포츠 중심지역 랜드마크 조성을 통한 ‘지역특화 스포츠 도시 육성정책’ 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시는 2023 월드 시니어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유치를 기회로 스포츠 특화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가운데, 전세계 약 10억명의 팬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테니스 특화도시 런던의 윔블던 발전 사례를 통하여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 특화 스포츠 도시 육성 정책의 선두주자로 나아가고자 함

관광거점 도시 ➡ 지역문화 중심의 종합 관광도시

- 영국 에딘버러는 스코틀랜드의 수도이자 대표적인 관광, 축제의 도시로 공연예술 및 국제영화제, 재즈 축제 등이 열리는 데 매년 8월, 약 3주간의 기간 동안 도심 전역에서 ‘에딘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이라 불리는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 축제는 영국 내 각종 상을 휩쓸며, 유럽 도시 중 최고수준의 문화도시로 자리하고 있음. 이와 함께 프린지협회에서 주최하는 ‘에딘버러프린지페스티벌’ 은 실험적인 작품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통해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축제로 자리잡는 한편, 아트마켓을 통하여 페스티벌과 연계한 예술상품의 유통으로 공연예술의 수요창출 및 공급의 역할하고 있음. 특히, 이 축제를 주관하는 프린지협회는 순수민간 성격의 협회로서 극장 및 장소 섭회, 각종 프로그램 및 축제일정을 수립

하고 있는데, 운영비용은 기업의 후원과 축제수익을 통해 운영되며 에딘버러시의 보조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경쟁력 있는 협회 육성에 우수사례로 손꼽히는 단체임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특화 관광도시]

- 우리시는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전통문화 관광자원을 비롯하여 이제는 대표 축제로 자리잡은 전주국제영화제, 전주비빔밥 축제, 가맥축제 등 지역특화 관광자원이 풍부한 장점이 있음. 그러나, 이러한 관(官)주도 형태의 축제는 매년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집행기관이 가지는 본연의 한계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매년 비슷한 내용으로 반복적 개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지역 내 축제를 주관하는 민간단체 역시, 많은 부분을 공공부문에 의존하고 있어 자생기반이 약한 탓에 지역 대표문화 축제를 발굴·육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영국 에딘버러시에 대한 방문을 추진하여 세계적인 축제도시와 우리시의 경쟁력을 비교하고 우리만의 색을 가진 지역특화 축제 육성을 위한 길을 모색하고자 함

세계적인 광역도시 ➡ 장기적인 계획과 도시재생

- 프랑스 파리를 일컬어 ‘사회적 합의가 갖는 권위를 존중하며 긴 호흡으로 만들어 낸 도시’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는 일관성 있는 장기적인 계획아래 엄격한 보존정책과 규정 등을 통하여 이룩해낸 것으로 도시 인프라·문화유산·건축·경관 등 여러 부문에서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음

- 파리의 도시재생 기본방향은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모든 것을 쓸모있게 바꾸어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버려지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공공건물을 시민 문화공간으로 변화시켜 도시의 활력을 일으키는 것이며, 파리 레알지구와 같이 도시의 골칫거리인 시장을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는 한편 그 자리에 공원과 지하 상업센터, 철도 역사를 조성하는 등의 과감한 도시 재생을 통해 광역도시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아가고 있음.
- 영국 런던의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사회기반 문화중심 사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심 활성화’ 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자율적인 성장과 정부의 문화예술가 지원 속에 해당 지역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재생을 추진 하였고 이는 기존의 도심 효율성 추구하고 물리적 기반시설 중심에 치중한 도시재생의 부작용과 빌바오 효과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기반이 되었는데, 화력발전소를 재활용한 ‘테이트 모던 미술관’ 과 19세기 왕실기구인 커먼웰스를 리모델링한 ‘디자인 박물관’ 은 도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며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런던 지역자치구에서 추진 중인 장기 도시활성화 계획 ‘바킹 대거념’ 프로젝트는 쇠퇴하던 지역에 문화공간 등의 재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목표로 하고 있음.

[빌바오 효과]

1997년 스페인 북부에 위치한 도시 빌바오의 낙후지역 재생도 사례를 일컫는 것으로 과거 산업 인프라로 사용되던 발전소, 공장, 탄광 혹은 노후된 관련 시설을 문화 예술시설로 재탄생시켜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고 주변 상권을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땅값 상승과 원주민에 대한 역차별, 일시적인 상업효과에 따른 지역 특성 및 고유 문화의 훼손 등이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장기적인 계획과 선진 도시재생 사례 적용]

- 파리와 런던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세계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일관성 있고 장기적인 도시계획의 수립과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음.
- 최근 우리시는 민선 8기에 들어 단체장이 교체되며 지난 민선 6~7기의 도시발전 방향을 폐기하고 새로운 도시발전의 방향을 급격히 변경하여 우려를 낳고 있으며, 특히 도시재생 부문에 있어 한옥마을과 자만 벽화마을, 객리단길 등 원도심 활성화에는 성공하였지만 빌바오 효과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는 실정으로 두 도시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시가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을 신중히 검토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우리시는 지난해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서 ‘경제기반형’ 부문에 선정돼 오는 2027년까지 종합경기장과 전북대 인근을 포함한 덕진권역 약 50만㎡ 부지에 총 6,323억 원을 투입,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변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인후·반촌과 팔복동 등 도시 곳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이번 연수를 통해 특색 있는 개발과 정비사업으로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고, 대한민국의 도시재생 일번지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

지속가능 발전의 기반 ➡ 친환경 공공 인프라

- 프랑스 파리 1,100만명, 영국 런던 950만명 등 이들 두 도시는 유럽 내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큰, 초거대 도시로 교통혼잡·불균형·환경오염·사회적 배제 등 세계적인 모든 도시가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점을 비슷하게 겪고 있음에도 이를 슬기롭게 해결하며 정치·경제·문화·관광 등에 있어 세계를 대표하는 도시로 자리잡음
- 지금 세계는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와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자원고갈과 산림파괴로 그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많은 국가들은 이러한 전 세계적인 위기 앞에 생존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서유럽의 대표 선진국인 프랑스와 영국은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나라일 것임.
- 대표적으로 프랑스 파리의 ‘프롬나드 플랑테’는 파리 12구역에 위치한 버려진 철도로 바스티유와 벵센에 이르는 4.7km에 대하여 도심환경 개선을 위한 고가정원을 조성하였고, ‘이시레물리노’는 이시그리드(Issy Grid)로 불리는 지능형 통신망을 구축하여 200여곳의 집과 1만명의 직원, 빌딩과 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및 전기차와 가로등이 센서와 보조장치로 서로 소통하고 통제하는 동시에, 모든 포인트의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하여 약 20%에 달하는 에너지 절약효과를 거두고 있음
- 과거 산업혁명의 발상지로 심각한 환경오염을 경험한 영국은 베드제드 시에 석유나 석탄 등의 화석에너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개발한 지역이라는 의미를 가진 ‘베딩톤 제로 에너지 단지’를 구축하여 자체 생산된 에너지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한 영국

최초의 친환경 주택단지를 운영중에 있고, 맨체스터 시는 ‘홍수위험관리 시스템’과 같은 기능 중심의 소규모 그린 인프라를 도시 전반에 적용하고 있으며, IOT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 전역의 차량운행 정보와 물 절약을 위한 정원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한 밀턴킨즈 시,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선진 사례임

[친환경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 구축]

- 우리시의 인구는 비록 65만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행정구역상 완주군에 둘러싸인 기형적인 형태로 도시 확장이 어려워 주로 인구 100만 이상의 광역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도시 과밀화를 비롯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환황해권 시대,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미래 광역도시로 나아가기 위하여 친환경 공공 인프라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친환경 도시재생 및 첨단기술을 통한 스마트시티 기술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사람을 향한, 시민행복 중심지 스마트전주’라는 비전 아래, 디지털트윈 기술의 접목으로 교통·환경·안전 등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전주시 스마트도시 추진계획은 프랑스와 영국의 선진사례 도입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오는 2025년까지 에너지자립률 30%, 전력 자립률 40% 달성을 목표로 한 ‘에너지디자인 3040’ 계획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디지털트윈]

현실에 존재하는 객체(사물·공간·환경·공정·절차 등)를 컴퓨터상에 디지털 데이터 모델로 표현하여 똑같이 복제하고 실시간으로 서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한 것

미래를 위한 5차 산업육성 ➡ 새로운 관광산업 육성

- 정부 보조금으로 살아가던 영국의 소설가 조앤 롤링은 어느날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 작품의 주인공 이름은 바로 ‘해리포터’ 지금까지 우리 돈으로 약 308조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한 작품으로 총 8편의 영화가 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히트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영화를 제작한 워너브라더스는 세트장을 철거하는 대신, 주인공의 이름을 딴 ‘해리포터 스튜디오’를 건립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영화가 촬영되었던 런던과 옥스퍼드 등의 각 지역은 시리즈가 종료된 지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영국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가보고 싶은 관광코스로 유명한 곳이 되었음 * 우리나라 반도체산업 경제효과는 약 230조원
- 축구는 단순히 스포츠를 넘어 전쟁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세계 3대 축구리그 중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 그중에도 세계 축구팬의 관심을 자극하는 경기는 맨체스터 더비를 들 수 있는데, 맨체스터는 일찍이 영국을 대표하는 공업도시로 많은 노동자가 있었던 탓에 축구가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진 도시로 프리미어리그가 점차 인기를 얻어가며 각 축구팀은 클럽 하우스를 운영하며 팬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고, 유니폼 및 축구관련 상품 마케팅을 강화하는 한편 ‘내셔널 풋볼 뮤지엄’을 건립·운영하는 등 영국에서의 축구는 스포츠를 넘어 관광산업으로 발전되었음.

[전주의 영화·영상산업과 전북 현대축구단]

- 전주 영화종합촬영소에서 촬영된 영화 ‘기생충’은 2019년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데 이어, 다음 해에는 100년

권위의 아카데미시상식에서는 작품상까지 수상하며 한국영화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린 일이 있으며, 우리시를 연고로 하는 전북 현대축구단은 국내리그는 물론 AFC 챔피언스리그를 평정하는 한편, 전국의 수 많은 팬들과 열정적인 서포터즈의 사랑을 받으며 세계무대에 진출해도 손색이 없는 축구팀으로 꼽히고 있음

- 위와 같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영화 세트장은 조기에 철거되어 버리며 관광객의 발길을 돌리도록 만들었고, 월드컵경기장은 아시아 최고의 축구팀에 걸맞지 않은 부진한 투자로 관광 유발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평가임
- 특히 우리시의 경우 전주월드컵경기장 일대를 중심으로 육상 경기장과 야구장·실내체육관 등이 위치한 복합 스포츠타운 조성을 통한 국내 스포츠산업 중심도시 발전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바, 시민들이 다양한 스포츠 경기를 즐기는 것은 물론, 각종 국제대회와 국내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유럽 최고 수준의 체육시설과 관광 산업화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우리시를 배경으로 촬영한 ‘스물다섯 스물하나’(tvN), ‘연모’(KBS2), ‘그 해 우리는’(SBS)등의 드라마가 국내·외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한편, 촬영지를 따라 여행하는 등의 테마관광이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 등 선진사례 견학을 통해 이 같은 테마관광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관련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옴부즈만 제도의 역사 ➡ 지자체 옴부즈만 설치

- ‘옴부즈만’이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대신해 그들의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불만과 고충 등 민원을 제기하고 해결해주는 대리인(agent)이라는 의미로 국민 권익 구제 수단으로서 행정청의 권력남용, 불공정한 권한 행사 또는 실정에 대항해 국민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의 업무가 국민에게 보다 개방되게 하며,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 권익위원회·중소기업 옴부즈만·한국소비자원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음.
- 옴부즈만 제도의 역사가 50여년이 지난 영국은 의회 및 보건 서비스 옴부즈만(PHSO)이 대표 국가 옴부즈만으로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고, 실질적 국민권익구제 수단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조치를 권고하는 등 다양한 민원처리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제도발전을 모색하고 있음.
 - ※ 영국 의회 옴부즈만은 1967년 설립, 보건서비스 옴부즈만 1973년 설립된 이후 1998년경 영국 의회·보건 서비스 옴부즈만으로 통합 운영
- 프랑스 옴부즈만은 행정의 비대화로 인해 시민들의 행정 불만 속출, 행정재판소 재소 건의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해소방안의 하나로 도입되었으며, 철저한 독립성이 보장되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행정을 관할하며 행정의 부당성 뿐만 아니라 행정의 적절성 여부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 영국의 감사원은 입법부형 감사원의 형태로 지역별 독립된 지방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프랑스의 경우 독립기관형

감사원으로 지역별 법원 성격을 갖는 별도의 지방감사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의 부패방지청(AFA)은 국가기관으로 모든 공공부문과 더불어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기업 및 법인을 통제하며 기업과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매커니즘의 현실성과 효율성을 검증하고 관리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지자체 음부즈만 설립·운영 활성화]

- 현재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천시 등 13개 지자체에서 지자체 음부즈만에 해당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시도 청렴시민감시관 운영을 통해 공공사업의 청렴계약 및 고충민원 조정·중재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활동이 미흡하므로 고질·반복·복합민원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조사하고 해결해나갈 수 있는 청렴시민감시관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 대두
- 지방음부즈만 제도의 역사가 깊은 서유럽의 감사기구 운영 우수사례를 통해 독립성·전문성·협력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감사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시대 흐름에 맞는 법령 정비는 물론 국제기구와 공조 등 지속적으로 부패를 척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

공공부문 아웃소싱(민간위탁) 활용 ➡ 관리 방안 재구축

- 최근 민간부문의 전문성을 활용해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비용절감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아웃소싱(민간위탁)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음

- 영국은 대표적인 아웃소싱 국가로 중앙정부나 지자체, 일반 기업 등 지속적으로 확대·운영되고 있으며 행정, 복지, 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 민간부문으로의 민간위탁(아웃소싱)과 동시에 중앙정부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감시기능 강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신공공경영(NPM) 정책을 추진해 공공서비스에 있어 다양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음
- 그 활용 사례로는 영국 305개의 지자체 쓰레기 수거기관의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약 22%의 예산 절감 효과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이 있으며 이를 통해 아웃소싱의 긍정적 효과를 살펴볼 수 있음
- 다만, 민간위탁 사례에도 수탁기관 선정의 부적절, 독점위탁의 관행적 장기화, 수탁기관의 관리감독의 부실 등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관련 법제·감독체계 마련,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선 논의 등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적정성과 책임성의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시키기 위해 국가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민간위탁시설 관리 방안 재구축]

- 최근 우리 시의 경우에도 민간위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위탁계약이 상당 부분 비경쟁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민간위탁이 기대했던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의문과 비판이 존재하고 있으며 영국의 선진사례를 비교 분석해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관리 방안 개선이 필요함

- 우리시의 경우 전주영화제작소,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전주시 에너지센터 등 민관위탁 기관의 수가 해마다 증가함에 있어 다양한 기관 유형에 맞는 민간위탁 성과평가 및 평가시스템 모니터링 등 수탁기관의 위탁사무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재계약에 반영하는 등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과 민간위탁 조례와 규칙 검토 등 법제 차원의 개선 방안 논의가 필요함
- 영국의 아웃소싱 우수사례, 민간자본 참여사업, 민간위탁 법제 등 다양한 활용 사례에 대한 보다 철저한 평가 및 연구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아웃소싱 모델을 개발해 비용절감·공공서비스 질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IV 기대 효과

- 우리시는 유구한 역사에 빛나는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새만금의 완공과 함께 다가올 환황해권시대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기존과는 다른 획기적인 형태의 도시발전의 패러다임이 절실함
- 전주시의회는 제12대 전반기 의회를 개원하며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낙후된 도시 이미지를 벗어나 지금까지와는 다른 미래 세대를 위한 경쟁력 있는 도시로의 변화가 필요함
- 연수배경 부문에서도 언급하였듯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도시계획과 친환경 도시 공공 인프라 구축과 역사·자연유산 보전 및 스포츠 특화도시, 관광산업 등을 통해 세계를 이끌어 가는 ‘영국과 프랑스’ 에 대한 벤치마킹을 추진하고자 하며,
- 내실있는 활동 및 수집된 자료가 의회 차원의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한편, 선진 정책을 체험 하는 기회를 넘어 자치단체간 국제교류를 위한 안목을 넓히고, 우리시가 추구해야 할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로 삼아
- 그간,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 연수성 해외연수에 대한 우려를 일소하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는 의회,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새로이 거듭나고자 함

V 국가 소개

프랑스



□ 개 관

- 정식명칭은 프랑스공화국(La République de France)이며, 수도는 파리이다. 면적은 64만 3801km²로 한반도의 2.5배이고 유럽연합(EU)의 5분의 1의 넓이이다. 인구는 2022년 현재 6,542만명이다.
- 인종은 북부·중부 유럽에서 이주해 온 켈트(Gaule족)·게르만·노르만계가 다수를 차지하고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다. 종교는 가톨릭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 프랑스는 대체로 대서양·지중해·대륙의 영향이 결합된 온대 기후를 보인다. 겨울은 산지와 북동부의 알자스 지방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온화하다. 전후부터 1970년대 중엽까지 상당 기간에 걸쳐 계속된 유례 없는 성장으로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되었다. 경제구조는 3차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21년 현재 국민총생산은 2조 9,250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은 약 4만 4,650달러이다.

- 대통령은 1962년 개정된 헌법에 따라 직접보통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7년이다. 의회는 국민의회(577석, 임기 5년)와 상원(321석, 임기 9년)으로 구성되며, 국민의회 의원의 임기는 5년이고, 소선거구제로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 주요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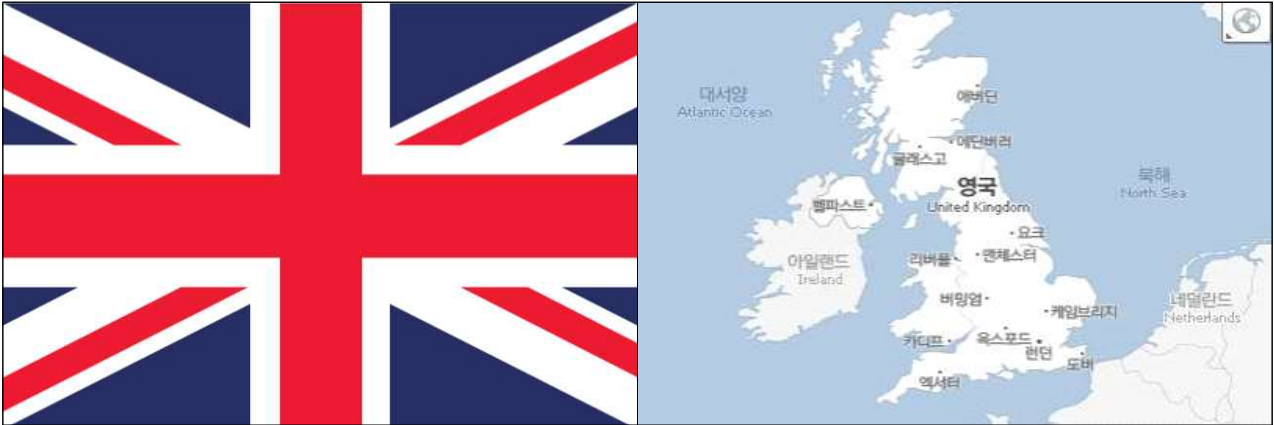
- BC 2000년경 북프랑스에 켈트족이 이동해 와 서기전 5~3세기 사이에는 프랑스·영국·스페인 등을 정복하였다. 부족국가간 대립으로 서기전 2세기경부터 로마에 의하여 정복되었다.
- 5세기경 서로마제국이 멸망함에 따라 게르만민족 중 프랑크인이 세력을 확대하였고 8세기경에는 샤를마뉴가 대제(大帝)가 되어 프랑스·독일·이탈리아에 걸치는 왕국을 건설하였다.
- 샤를마뉴 대제 사후, 843년 베르딩조약으로 동프랑크(독일)·서프랑크(프랑스)·이탈리아로 3분되어 현재와 같은 프랑스의 판도가 정립되었다.
- 외교에 있어서 프랑스는 미·소 등 초강대국에 맞서는 국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독자적 외교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탈퇴, 핵확산금지조약 비준서명, 유럽공동체(EC) 경제권 강화, 대러시아 외교 등에서 미국과 입장을 달리 하고 있다.

□ 우리나라와의 관계

- 시작은 평탄하지 못하였다. 양국간 최초의 접촉은 먼저 종교 면에서, 그 다음은 이를 계기로 군사적인 충돌로서, 나중에 외교적인 국교수립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 한·프랑스 양국이 공식적으로 접촉하기 시작한 것은 1948년 8월 15일 우리 정부가 수립된 뒤 파리에서 열린 제3차 유엔총회였으며, 1949년 2월 한국을 정식 승인함으로써 국교를 재개하게 되었다.
- 6·25전쟁이 일어나자 프랑스는 유엔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군의 한국파병을 결의하고, 라 그랑디에르호(La Grandière號)라는 소형구축함을 파견하여 유엔군 사령부 산하에서 작전중인 미해군함대에 배속시켜 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 양국은 1958년 10월 공사관에서 대사관으로 승격시키는 외교관계를 강화하고 고위인사 및 사절단파견 등 방문외교를 추진하였다.
-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 프랑스 수출액은 45억 6,000만 달러이고 주종목은 선박, 승용차, 축전지, 자동차 부품 등이다. 수입액은 66억 4,200만 달러이고 주종목은 항공기, 화장품, 의약품, 펌프 등이다.
-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는 11개 종목 107명의 선수가 참가하였다. 2021년 기준 프랑스에는 3만여명의 재외동포가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프랑스 수도인 파리 및 근교와 각 지방에 거주하고 있다. 프랑스에 한글학교 13개가 설립되어 있어 교민과 프랑스인의 한글교육에 기여하고 있다.

영 국



□ 개 관

- 정식 국호는 그레이트 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일반 명칭은 영국연합왕국(United Kingdom)이다. 면적은 24만 3,610km², 인구는 2022년 현재 6,844만명이며, 민족적 구분은 앵글로색슨족과 켈트족으로 대별된다. 공용어는 표준영어(King's English)이나 켈트계의 게릭어(Gaelic語)·웨일스어·콘월어(Cornish)도 사용된다.
- 종교는 영국국교회(Anglican Church, 50%) 외에 가톨릭(11%), 감리교(Methodism)(30%)가 신봉된다.
- 기후는 멕시코만류와 편서풍의 영향으로 북위 50°~60°의 고위도임에도 따뜻하며 기온의 차도 적다. 1975년부터 원유를 생산해 온 북해유전(北海油田)이 영국의 국제수지 향상에 밝은 전망을 던져주고 있으나, 에너지산업·제조업·국제무역·광업 등 모든 분야에서 정체와 부진을 거듭하고 있다. 2021년 기준 국민총생산은 2조 9,360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은 약 4만 2,900달러이다.

- 영국 정치제도의 기본은 입헌군주제하의 의회정치이다. 국왕은 상징적·의전적 기능을 갖는 데 그치고, 복수 정당이 총선거에 참가하여 의회(하원) 내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집권당이 되며, 수상이 수반이 되어 대권을 장악, 행사한다.

□ 주요역사

- 영국은 서기전 55·54년 카이사르(Caesar)의 침공으로 로마의 속주(屬州)가 되어 브리타니아로 불렸다. 약 400년간 로마의 군정이 있던 뒤 앵글로색슨의 침공으로 6~8세기에 7왕국시대가 있었으나 829년 통일왕국을 이루고, 1066년에 봉건국가 노르만조(朝)가 성립되었다.
- 절대군주제는 엘리자베스(Elizabeth) 1세의 치세 이후 점차 쇠퇴하여 17세기 100년 동안의 내란을 경험하고 1688년 명예혁명을 이룩하였으며 이때부터 영국은 입헌군주제하 의회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오늘에 이르렀다.
- 18~19세기에는 해외영토 확장을 통해 ‘대영제국(大英帝國)’을 건설하였으나, 20세기에 들어와 치른 두 차례의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대영제국은 ‘영연방(英聯邦)’으로 탈바꿈하여 사실상 붕괴되었다.

□ 우리나라와의 관계

- 우리나라와 영국과의 관계는 1845년 영국군함 사마랑호(H. M. S. Samarang號)가 거문도에 들러 그 섬을 ‘포트 해밀턴(Port Hamilton)’이라 명명하고 돌아간 것이 양국 접촉의 효시였다.

-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 뒤 우리나라와 영국의 관계는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국·영국·소련의 외상회담에서부터 시작되었다. 6·25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유엔군의 일원으로 항공모함·순양함·구축함으로 구성된 함대를 한국해역에 급파하였으며, 이어 지상군을 파견하였다.
- 한국과 영국의 외교관계는 1949년 1월 18일 수교합의가 이루어진 뒤 그 해 3월 주한영국대사관이 설치되었고, 1950년 2월 주영한국대사관이 개설되었다.
- 2017년 3월 브렉시트 이전까지, 영국은 EU 소속국가로 한국은 한-EU FTA에 따른 관세 인하 혜택을 받고 있었다. 한국의 대영국 주요 수출품은 해양구조물, 승용차, 선박, 항공기부품, 자동차부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원유, 승용차, 그림, 의약품, 백금 등이다. 2016년 기준 한국의 대영국 수출액은 59억 6,215만 달러이며, 수입액은 58억 962만 달러이다.
-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는 11개 종목 59명 선수가 참가하였다. 그 밖에 한국에는 1954년 한영협회, 영국에는 1956년 영한협회 (Anglo-Korean Society)가 설립되어 양국의 친선에 앞장서고 있다.

VI 출 장 일 정

일차	방문지역	주요 일정	벤치마킹 사항
1일	인천공항 영국 런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공항 출발 → 런던 도착 	
2	영국 런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개발공사 해리포터 스튜디오 외 테이트 모던미술관 디자인 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진국 도시정책 세계적인 영화·영상산업 도시재생 문화시설
3	런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국 음부즈만 웍블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렴도 제고 세계 스포츠 특화도시 벤치마킹
4	에딘버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제위원회 페스티벌 프린지 위원회 외 골목중심의 관광상품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내셔널 축제 기획 대표축제 준비위원회 MICE산업 중심의 관광자원 현장방문
5	맨체스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수위험관리 시스템 축구 관련 인프라 탐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능중심 소규모 그린인프라 스포츠를 이용한 관광산업
6	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리도시개발공사 라데팡스 국영 도시공사 루브르박물관, 오페라하우스 2022 프랑스오픈 배드민턴 개막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낙후 원도심 재생사업 선진국 신도시 개발정책 세계적인 역사관광시설 스포츠 마케팅 벤치마킹
7	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드프랑스 도시계획연구소 프롬나드 플랑테 베르시빌라주 부패방지청(AFA)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리 광역권 도시계획 버려진 고가철도 재활용 공원 이색적인 쇼핑거리 청렴도 제고
8	이씨 레 물리노 몽셀미셀 노르망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씨 레 물리노 스마트시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체에너지 활용 및 친환경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원 및 유명 항구도시 탐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네스코 자연유산 및 역사관광 자원의 산업화
9	프랑스 파리 인천공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리 출발 → 인천공항 도착 	

※ 상기 일정은 현지사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Ⅶ 출장단 구성

□ 구성인원 : 17명(의원 17)

연번	직책	성명	영문성명	여권번호	성별	비고
1	단원	김동헌			남	
2	단원	정섬길			여	
3	단원	송영진			남	
4	단원	최주만			남	
5	단원	최명권			남	
6	단원	전윤미			여	
7	단원	김세혁			남	
8	단원	김정명			남	
9	단원	남관우			남	
10	단원	박형배			남	
11	단원	이보순			여	
12	단원	김윤철			남	
13	단원	박혜숙			여	
14	단원	신유정			여	
15	단원	온혜정			여	
16	단원	이성국			남	
17	단원	장병익			남	